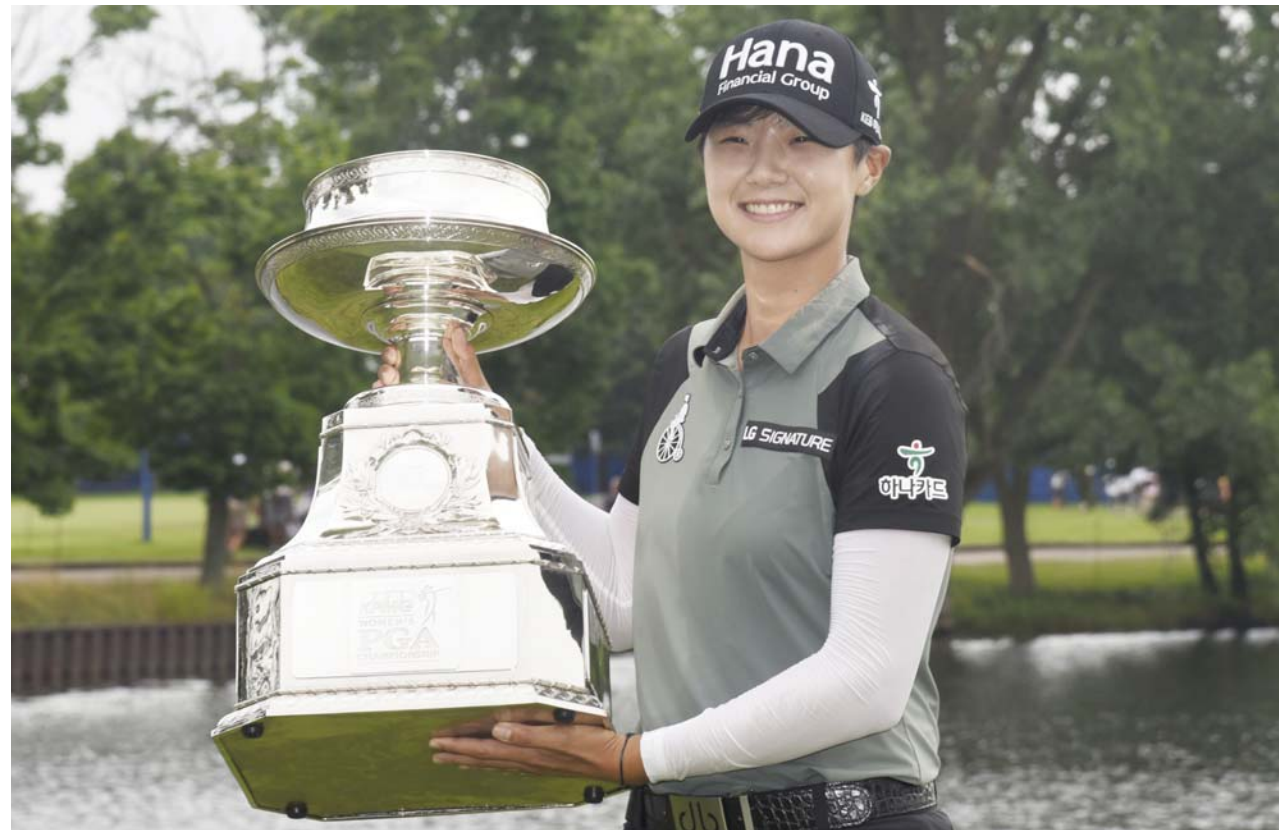


박성현, 연장 접전 끝 메이저 2승 달성

LPGA투어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서 연장 승부 끝 우승
유소연, '컷 탈락' 박인비 제치고 1위 가능했지만 준우승 아쉬움



박성현(25)이 2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킨디어의 캠프 레이크스 골프클럽(파 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성현(25)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세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총상금 365만달러)에서 유소연(28)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박성현은 2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킨디어의 캠프 레이크스 골프클럽(파 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쳐

3안타와 6타를 기록했다. 전날 유소연에 4타차로 뒤진 3위를 달리고 있었던 박성현은 이날 3타를 줄여 최종합계 10안타와 27타를 기록했다. 박성현은 유소연, 하타오카 나사(19)와 동타를 기록해 연장 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1차 연장에서 하타오카를 떨어뜨린 박성현은 2차 연장에서 유소연을 제압하고 개인 통산 메이저대회 2승째를 수확했다. 우승이 유력해 보였던 유소연은 2번 홀에서 더블보기를 범해 주춤했고, 17번 홀에서도 티샷이 워터해저드에 빠지면 박성현 하타오카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유소연이 4타를 잃은 반면 박성현과 하타오카는 3타, 8타를 줄였다.

결국 경기는 연장전에 돌입했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간 박성현의 승리로 끝났다. 우승을 차지하면 컷 탈락한 박인비(30)를 제치고 세계랭킹 1위에 올라설 수 있었던 유소연은 준우승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하타오카는 3위에 머물렀다. 에인젤 인과 제시카 코다(이상 미국)는 7안타와 28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김인경(30)은 마지막 날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5안타와 28타로 공동 8위에 올랐다. 고진영(23)과 양희영(29)은 4안타와 28타로 공동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프리미어리그 뉴캐슬로 이적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기성용이 1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성용, 축구대표팀 은퇴하나

“마음의 정리 됐다…때 되면 직접 밝힐 것”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이 확정된 기성용(29)이 은퇴 가능성을 밝혔다. 기성용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른 선수들에 비해 2일 늦게 귀국했다. 앞서 신태용 감독을 비롯한 22명의 태극전사들은 6월29일 귀국, 해단식에 참석했다. 1일 귀국한 기성용은 “은퇴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마음 속으로 정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성용은 “지난 4년 간 주장으로서 대표팀을 잘 이끌지 못했다. 한국 축구가 비난을 받으면서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털어놓았다. “커리어에 있어서 클럽에 집중할지 아니면 대표팀에 더 남아 있을지 고민했고 주변사람들과도 이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 마음의 정리는 어느정도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기성용은 “지난 4년 간, 길게

는 8년 간 대표팀이 어수선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감독이 여러 차례 바뀌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주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짐도 많아서 부담이 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은퇴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때가 됐다고 판단되면 내 입으로 직접 밝히겠다”고 답했다. 당분간 국내에서 휴식을 취한 뒤 8월11일 EPL 개막에 맞춰 몸상태를 끌어 올릴 예정이다. 뉴캐슬은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 홋스퍼와 홈에서 개막전을 치른다. 기성용이 새로 동지들 틈 뉴캐슬은 EPL 명문구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영국 북동부 뉴캐슬이 연고지로 1892년 창립됐다. 프리미어리그 4차례 우승,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6차례 제패에 빛나는 구단이다. 홈구장은 세인트에임스 스타디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는 12승8무18패(승점 44)를 기록하며 10위를 차지했다.

강성훈, 퀴큰론스 내셔널 3위로 마감…몰리나리 첫 우승

강성훈(31)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퀴큰론스 내셔널(총상금 710만달러) 마지막 날 절정의 컨디션을 선보여 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강성훈은 2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포토포맥의 TPC 포토포맥(파 70)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아내 6안타와 64타를 기록했다. 전날 공동 16위에 자리했던 강성

훈은 이날 6타를 줄여 최종합계 12안타와 28타를 기록해 단독 3위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강성훈이 올해 톱 10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 2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낸 강성훈은 6번 홀에서 1타를 더 줄여 패조의 출발을 선보였다. 이후 14번 홀에서 버디를 낚은 강성훈은 마지막 17, 18번 홀에서 버디 퍼트에 성공해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

감했다. 프란체스코 몰리나리(이탈리아)는 10번 홀에서 이글을 잡아낸 후 11~14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는 등 8타를 줄여 최종합계 21안타와 29타로 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라이언 아머(미국)는 13안타와 26타로 2위에 올랐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강성훈에 1



타 뒤진 11안타와 26타로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3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공동 5위를 차지한 우즈는 약 4개월 만에 톱 10에 진입했다.

스페인 '개최국 징크스' 탈출 실패...러시아에 패배

월드컵 본선서 개최국 꺾지 못해...징크스에 발목



‘무적함대’ 스페인이 국제축구연맹(FIFA)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서도 개최국 징크스를 깨지 못했다.

스페인은 1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진후반과 연장을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3-4로 패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후보로 분류됐던 스페인(10위)은 순위에서 60계단이나 낮은 러시아(70위)에 뜻밖의 일격을 당했다. 스페인은 그동안 월드컵 본선에서 개최국을 꺾지 못했다. 스페인의 이같은 징크스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개최국인 러시아에 또 다시 발목을 잡혔다. 스페인은 1934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와 1-1로 비긴 뒤 재경기에서 0-1로 졌다. 당시의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집권했던 시절로 경기가 이탈리아에게 유리

한 쪽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페인은 1930 브라질 월드컵에서 개최국 브라질에 1-6으로 대패를 당했다. 스페인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도 한국과 0-0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3-5로 패했다. 스페인의 이런 징크스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도 이어졌다. 스페인은 유로 1984에서 개최국 프랑스에 졌고 4년 뒤 서독에서 열린 대회에서도 서독에게 패했다. 페르난도 이에로 스페인 감독은 러시아전을 앞두고 실시한 인터뷰에서 이같은 징크스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에로 감독은 “우리는 월드컵 4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다. 왜 10~12년 전에 치른 경기를 논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로 감독도 스페인의 이런 지긋지긋한 징크스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다.

추신수, 볼넷 1개로 42경기 연속 출루...이치로 기록 '코 앞'

‘출루 기계’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마지막 타석에서 볼넷을 얻어내며 극적으로 42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전날 허벅지 통증으로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하고 하루 휴식을 취한 추신수는 안타 생산에는 실패했다. 지난날 17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부터 30일 화이트삭스전까지 이어온 1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마감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86에서 0.283(315타수 89안타)로 내려갔다. 추신수는 좀처럼 출루 기회를 잡지 못했다. 출루에 성공한 것은 마지막 타석이었다. 텍사스가 4-8로 추격한 8회말 무사 1루 상황에서 상대 좌완 볼펜 투수 사비에르 세데뇨를 상대로 추신수는 풀카운트 끝에 볼넷을 골라냈다. 추신수는 후속타 불발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추신수는 1경기만 더 연속 출루

기록을 이어가면 스키즈 이치로가 보유한 아시아 출신 선수 최장 연속 경기 출루 기록(43경기)과 어깨를 나란히한다. 현역 선수 최장 연속 출루는 조이 보토(신시내티 레즈)와 알버트 푸홀스(LA 에인절스)가 보유한 48경기다. 메이저리그 최장 기록은 테드 윌리엄스가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이던 1949년 7월 1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서 9월 27일 워싱턴 내셔널스 전까지 이어간 84경기다. 텍사스는 화이트삭스와 난타전을 벌인 끝에 5-10으로 졌다. 3연승 행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사진 왼쪽)가 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8회말 볼넷으로 출루한 뒤 1루 코치와 대화하고 있다. 진을 마감한 텍사스는 47패째(38승)를 기록했다.

“호날두, 대표팀 떠나지 마”

포르투갈 산투스 감독 “모두 함께 하길 원해” 잔류 희망

포르투갈 축구 대표팀 감독이 ‘축구의 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대표팀에 남아주기를 바랐다. 포르투갈은 1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의 피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루과이에 1-2로 져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 호날두를 앞세워 2016년 유럽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포르투갈은 조별리그에서도 호날두의 활약 속에 1승 2무(승점 5)를 기록하고 B조 2위로 16강에 올랐지만, 우루과이에 저 알짜값치 짐을 썼다. 호날두는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 공격수의 면모를 뽐냈다. 모로코와의 2차전에서도 한 골을 터뜨리며 1-0 승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16강전에서 참목한 호날두는 월드컵 우승 꿈을 이루지 못했다. 호날두는 4년 뒤면 만 37세가 된다.



투스 감독은 16강전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호날두는 아직 축구로 기여할 것이 많다. 호날두가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대표팀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그는 이날 경기 후에도 “아직 미래에 관해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그가 대표팀을 떠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페르난두 산투스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은 호날두의 대표팀 은퇴를 만류했다. FIFA 공식 홈페이지와 ESPN, 스키스포르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산투스 감독은 “우리 모두가 호날두가 대표팀과 함께 하길 원한다”고 재차 호날두의 대표팀 잔류를 희망했다. 한편 산투스 감독은 “광장을 가득 메운 포르투갈인이 우리를 응원한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기대를 만족해 주지 못해 무척 슬프다”고 패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